

TRANS- HUMANITIES

Title : 신체론으로서의 감각론: 스피노자의 물음 ‘신체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들뢰즈의 답변

Theory of Sensation as Theory of Body: Deleuze’s Answer to Spinoza’s Question: What Can Our Bodies Do?

Author(s) : 성기현 (SEONG Gihyeon)

Source : *Trans-Humanities*, Vol. 6 No. 2 (2013), pp. 171-198

Published by :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URL : <http://eiheng.ewha.ac.kr/page.asp?pageid=book10&cpagenum=060600>

Online ISSN : 2383-9899

All articles in *Trans-Humanities* are linked to the Homepage of KCI and Ewha Institute for the Humanities and can be downloaded:

www.kci.go.kr & <http://www.trans-humanities.org/>



이화여자대학교
EWHHA WOMANS UNIVERSITY

신체론으로서의 감각론

- 스피노자의 물음 ‘신체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들뢰즈의 답변

성기현

1. 들어가는 글: 스피노자의 물음

스피노자는 철학자들에게 새로운 모델, 즉 신체를 제안한다. 그는 그들에게 신체를 모델로 세울 것을 제안한다. “사람들은 신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무지에 대한 이 선언은 하나의 도발이다. 우리는 의식과 의식의 명령에 대해, 의지와 의지의 결과에 대해, 신체를 움직이고 신체와 정념을 지배하는 온갖 수단에 대해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신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어댄다. 니체가 말했듯이, 사람들은 의식 앞에서 놀라지만, “놀라운 것은 오히려 신체다...”¹⁾

성기현 서울대학교 미학과

1) Gilles Deleuze, *SPP*, Paris: Minuit, 1981, 28. 박기순 옮김. 『스피노자의 철학』. 서울: 민음사, 1999. 32 번역참조. 이 책은 1970년 출간된 초판에서 스피노자의 텍스트들을 빼고 3, 5, 6장을 덧붙여 수정·증보한 것이다. 이 책을 인용할 경우 해당 페이지의 쪽수를 원서/번역서의 형태로 병기한다.

『스피노자. 실천철학』에서 들뢰즈는 스피노자의 물음 ‘신체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그 저작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물음으로 내세우고 그에 대한 답변을 모색한다. 들뢰즈 사상의 전개과정에서 볼 때, 이 물음은 다음의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이 물음은 가타리와 의 공동작업을 기점으로 본격화되는 들뢰즈의 윤리적·정치적 전회를 알리는 신호탄에 해당한다. 둘째, 이 물음은 그들의 윤리적·정치적 기획이 갖는 성격과 목표를 특징짓는 것으로서, 『안타-오이디푸스』(*L'Anti-Œdipe*, 1972), 『천 개의 고원』(*Mille Plateaux*, 1980), 『프랜시스 베이컨: 감각의 논리』(*Francis Bacon: La Logique de la Sensation*, 1981), 그리고 『철학이란 무엇인가?』(*Qu'est-ce que la Philosophie?*, 1991)에서 개진되는 주요 개념들, 즉 기관 없는 신체(*corps sans organes*), 되기(*devenir*), 이것임(*heccété*), 감각(*sensation*) 등이 겨냥하는 과녁에 해당한다.

우선 물어야 하는 것은 왜 신체가 문제가 되는가, 즉 ‘신체의 모델’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데카르트 『정념론』(*Les Passions de l'Âme*)의 서두가 전형적으로 보여주듯이²⁾, 정신(*esprit*)(또는 영혼(*âme*))과 신체의 관계는 흔히 반비례적인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즉 정신이 능동일 때 신체는 수동이며, 신체가 능동일 때 정신은 수동이다. 이로부터 ‘의식을 통한 정념의 지배’라는 도덕(*Morale*)의 전통적인 원리가 나온다.(Deleuze, *SPP* 28/32) 그러나 스피노자는 자신의 윤리학(*Éthique*)(이후 살펴보겠지만, 이는 도덕과 엄밀하게 구별된다)을 이른바 평행론(*parallélisme*) 위에 근거 짓는다. “정신과 신체는 하나이자 동일한 것으로서, 때로는 사유 속성 하에서 때로는 연장 속성 하에서 파악된다.”(Spinoza, *E* 3부 정리 2 주석) 평행론은 정신과 신체의 관계에

2) “1항. 어떤 주체에게 수동[정념](*passion*)인 것은 다른 관점에서는 항상 능동이다.” “2항. 영혼의 수동[정념]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영혼의 기능과 신체의 기능을 구별해야 한다. [...] 영혼이 결합되어 있는 신체보다 우리 영혼에 더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주체는 없으므로, 영혼에 수동[정념]인 것이 신체에는 보통 능동이라고 생각해야 한다.”(René Descartes 327-328)

대한 다음의 두 가지 귀결을 함축한다(같은 곳). 첫째, 정신과 신체 사이에는 어떠한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따라서 의식을 통해 정념을 지배할 수 없다). 둘째, 정신과 신체 사이에는 어떠한 우월성도 존재하지 않는다(따라서 의식을 통해 정념을 지배할 수 없다). 극적인 반전 속에서, 이제 (도덕이 아닌) 윤리를 위한 새로운 원리가 도출된다. 정신에서 능동인 것은 신체에서도 능동이며, 신체에서 수동인 것은 정신에서도 수동이다.³⁾

들뢰즈가 보기에, ‘신체의 모델’이 갖는 근본적인 의미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발견된다. 스피노자는 정신과 신체를 둘러싼 문제의 지형 자체를 변화시킨다. 정신의 능동으로 신체의 수동을 만들 것이 아니라, 정신과 신체를 평행하게(parallèlement) 능동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신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데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정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신체는 신체에 대한 우리의 인식(connaissance)을 넘어서고, 마찬가지로 정신은 정신에 대한 우리의 의식(conscience)을 넘어서나. 뒤집어 보면, 우리는 차라리 다음과 같이 말할 수도 있다. 신체에 대한 인식을 넘어 ‘신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정신에 대한 의식을 넘어 정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한 알게 될 것이다.⁴⁾ 바로 이런 관점에서, 들뢰즈는 윤리학에서 ‘신체의 모델’이 갖는

3) “우리 신체의 능동과 수동의 질서는 본성상 우리 정신의 능동과 수동의 질서와 나란하다.”(Spinoza, *E* 3부 정리 2 주석)

4) 그런데 정신과 신체의 관계가 평행한 것이라면, 왜 이 탐구는 정신이 아니라 신체를 모델로 삼는 것일까? 우선 스피노자에게서 “인간 정신을 구성하는 관념의 대상은 신체, 다시 말해 현행적으로 실존하는 연장의 일정한 양태이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다.”(*E* 2부 정리 13) 뿐만 아니라, “인간 정신은 신체의 변용에 대한 관념들을 통해서만 인간 신체 자체를 인식하고 인간 신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E* 2부 정리 19) 여기서 관념은 어떤 실재에 대한 표상이 아니라 정신의 활동 자체를 가리키며, 신체를 그러한 활동의 유일한 대상으로 삼는다. 즉 정신은 외부 물체를 표상으로서 직접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물체로 인해 야기되는 신체의 변용만을 인식한다. ‘신체의 모델’, 다시 말해 신체의 합성과 변용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식화한다.

우리가 신체의 능력들에 대한 인식을 획득하려는 것은, **그와 평행하게** 의식을 벗어나는 정신의 능력들을 발견하고 그 능력들을 비교할 수 있기 위해서다. 요컨대 스피노자에 따르면, 신체의 모델은 연장에 대한 사유의 평가절하를 함축하지 않는다. 오히려, 훨씬 중요한 것은 사유에 대한 의식의 평가절하다. 즉 그것은 무의식의 발견이며, **신체의 미지(未知)(inconnu du corps)**만큼이나 심층적인 **사유의 무의식(inconscient de la pensée)**의 발견이다.(Deleuze, *SPP* 29/33, 강조는 원문)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다음의 구별이다. 먼저, 신체의 측면에서 1) 신체의 미지(未知), 즉 신체의 능력과 그 실제적 변용 2) 신체에 대한 우리의 인식. 다음으로, 정신의 측면에서 1) 사유의 무의식, 즉 정신의 능력과 그 실제적 변용 2) 사유에 대한 우리의 의식. 신체는 다른 신체들을 통해, 정신의 관념은 다른 관념들을 통해 끊임없이 변용된다. 그러나 신체와 사유가 무엇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원인으로 인해, 어떤 규칙에 따라 변용되는지 알지 못하는 한에서, 우리는 그러한 변용의 결과(즉 신체에 대한 인식과 사유에 대한 의식)만을 받아들인다. “이처럼 아기는 자유롭게 젖을 빨다고 믿고, 화가 난 아이는 복수를 원한다고 믿으며, 겁쟁이는 도망가기를 원한다고 믿는다.”(Spinoza, *E* 3부 정리 2 주석) 이 지점에서 ‘신체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은 ‘신체의 능력과 그 실제적 변용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라는 물음으로 전환되는데, 들뢰즈(와 가타리)의 감각론이 답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물음이다.

이 글의 목표는 스피노자의 물음 ‘신체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들뢰즈(와 가타리)의 답변을 재구성하고, 그(들)의 감각론을 그러한 답변의 일부로서 올바르게 위치시키는 데 있다. 그간 국내에서도 그들

필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진태원, 2012. 131~133 참조)

의 감각론에 주목한 연구자들은 적지 않았다.⁵⁾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프랜시스 베이컨: 감각의 논리』나 『시네마』를 중심으로 회화론이나 영화론에 초점을 맞추거나, 『철학이란 무엇인가?』 7장의 예술론을 텍스트 내적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에 따라, 그러한 감각론이 제기된 맥락 자체는 상대적으로 충분히 연구되지 못했다. 이 글은 그들의 감각론이 들뢰즈(와 가타리)의 후기 사상을 특징 짓는 윤리적 기획, 즉 행동학(éthologie)⁶⁾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그런 관점에서만 그들의 감각론이 풍부하고 유의미하게 이해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특히 감각 개념을 구성하는 두 개의 하위 개념, 즉 지각(percept) 및 정서(affect)⁷⁾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은 독자들이 해당 개념을 일정

-
- 5) 주요 연구로는 이찬용, 「들뢰즈의 영화미학에서 정서의 문제」(『美學』 제69집. 서울: 한국미학회, 2012), 「들뢰즈의 회화론: 감각의 논리란 무엇인가?」(『美學』 제71집. 서울: 한국미학회, 2012). 김재인, 「들뢰즈의 미학에서 '감각들의 블록'으로서의 예술 작품」(한국미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미술간원고, 2013).
- 6) 행동학이라는 용어는 20세기 초에 시작된 동물행동학 연구에서 기인하는데, 김재인이 지적하듯 사실 이 용어는 윤리학과 동일한 어원(즉 ethos; 습성, 관습)을 갖는다. 이와 관련하여 들뢰즈가 주요하게 참조하는 동물행동학자는 야콥 폰 워스킬(Jakob von Uexküll)인데, 우리는 2장에서 그의 연구사례를 간략히 언급할 것이다. 들뢰즈의 스피노자 연구에서 워스킬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김재인, 「들뢰즈의 스피노자 연구에서 워스킬의 위상」(『철학 논구』36집. 서울: 서울대학교 철학과, 2008) 191~232을 참고하라.
- 7) 이 용어들의 번역어는 통일되어 있지 않다. 『철학이란 무엇인가?』의 국역본(이정임, 윤정임 옮김. 서울: 현대미술사, 1995(1999))에서는 번역어로 '지각'과 '정서'가 사용되었으나, 그간 percept는 지각체(知覺體)(김재인), affect는 변용태(變容態), 정감(情感)(김재인), 정동(情動)(서창현) 등으로 번역되어 왔다. 번역어 선정과 관련하여 필자가 주목하는 점은 다음의 세 가지다. 1) 우리말 어휘의 뉘앙스가 주는 오해를 피한다는 이유로 한자어 없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신조어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기존의 어휘를 새롭게 정의하여 그 어휘의 뉘앙스를 변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들뢰즈 자신의 방법론에 부합한다. 주지하다시피, 들뢰즈는 많은 경우 차이, 생성, 신체 등의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때로는 다른 개념들과 조합하되 그것을 새롭게 정의함으로써 해당 개념에 대한 기존의 이해방식과 대결하는 방식으로 독자적인 사유를 전개한다. 2) 들뢰즈는 이전까지 perception으로 지칭되던 사태를 perception과 percept로, affection으로 지칭되던 사태를 affection과 affect로 분절하고 있다. 예컨대 이전까지 지각(perception)으로 지칭되던 사태는 사실 특정한 대상을 의식적으로 지각하는 주체의 작용과 그에 따른

정도 이해하고 있음을 전제한 뒤 충분한 설명 없이 그것을 바로 예술론에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글은 신체, 행동학, 감각, 감각의 구성요소인 지각과 정서, 감각의 블록으로서의 예술작품의 순서로 논의를 전개하면서, 이 두 개념이 제기된 맥락을 행동학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그것의 의미, 구조, 작동방식을 입체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 글은 다음의 세 가지 물음에 대한 답변의 형식으로 구성된다. 첫째, 신체란 무엇인가. 여기서는 스피노자의 ‘자연학 소론’⁸⁾에 대한 들뢰즈의 해석을 통해 신체를 1) 가장 단순한 물체들(corps les plus simples)과 그 물체들이 맺고 있는 관계 2) 그에 상응하는 신체의 본질로서의 역량, 즉 변용능력으로 정의할 것이다. 둘째, 신체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신체를 구성하는 가장 단순한 물체들은 끊임없는 합성과 해체(좋음과 나쁨)에 직면하며, 그에 따라 우리의 신체는 지속적인 역량의 증가와 감소(기쁨과 슬픔)을 겪는다. 들뢰즈(와 가타리)의 행동학은 신체가 지닌 합성과 변용의 능력에 대한 탐구로서 1) 신체를 구성하는 가장 단순한 물체들의 합성(좋음) 2) 그에 상응하는 역량의 증가(기쁨)를 목표로 한다. 셋째, 신체의 합성과 변용을 어떻게 탐구할 것인가. 『스피노자. 실천철학』 이후 들뢰즈(와 가타리)의 행동학적 탐구는 기호론, 이미 이론, 감각론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중 우리가 주목하는

신체의 상태, 즉 지각작용지각상태(perception)과 그 기저에 있는 그것의 발생적 요소들, 즉 지각(percept)으로 분절된다는 것이다. 3) 『철학이란 무엇인가?』의 용례에 주목하면, 위의 두 개념쌍은 각각 켈레개념인 동시에 두 쌍이 상호 조응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예컨대 특정한 대상에 대한 지각작용 및 그에 따른 신체의 상태(perception)는 그에 상응하는 역량의 상태 및 그 상태에 대한 의식적 감정, 즉 정서작용정서상태(affect)를 갖는다. 번역어와 관련된 보다 상세한 논의는 본 논문의 4장을 참고하라. 다만 affection의 경우, 스피노자적 맥락에서 기본적으로는 변용으로 번역하되 affection과 affect를 구별하는 맥락에 한해 정서작용정서상태로 번역했음을 일러둔다.

8) ‘자연학 소론’이란 『윤리학』 2부 정리 13의 뒤에 붙어있는 일련의 자연학적 논의를 일컫는다. ‘자연학 소론’은 5개의 공리, 1개의 정의, 7개의 보조정리, 그리고 6개의 요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장 단순한 물체, 복합 물체, 그리고 인간 신체의 순서로 논의가 진행된다.

것은 감각론의 형태로 나타나는 탐구다. 여기서는 그(들)의 감각론을 구성하는 두 쌍의 개념, 즉 1) 지각작용/지각상태과 정서작용/정서상태 2) 지각과 정서의 구별이 1) 신체에 대한 인식 2) 신체의 미지(未知)(즉 신체의 능력과 그 실제적 변용)의 구별에 상응하는 것임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그(들)의 감각론이 신체의 행동학이라는 윤리적 기획의 연장선상에서 전개되고 있음을 살펴볼 것이다.

2. ‘자연학 소론’에 대한 들뢰즈의 해석: 신체란 무엇인가

들뢰즈에 따르면, 신체는 내재성(內在性)의 평면(plan d'immanence)에 놓인 하나의 양태다. 내재성이란 모든 양태들을 포괄하는 하나의 존재론적 지평이 존재하고, 이 지평의 외부에는 어떠한 양태도 존재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즉 모든 양태들은 이 지평에 내재(內在)한다. 그런데 이 지평이 갖는 내재적 성격은 절대적이다(절대적 내재성). 내재성의 절대적 성격은 그것이 이룰테면 일자의 내재성이나 정신의 내재성이 아니며, 그와 엄밀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함축한다.

내재성이 일자나 정신과 같은 초월성에 귀속된다면, 그리하여 모든 양태들이 그 초월성에 내재하게 된다면, 내재성은 자신의 절대적 성격을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상대적 내재성). (제롬 로장발롱, 브누아 프레트세이, 2012. 51~53 참조) 따라서 절대적 내재성은 자신을 담지하는 어떠한 종류의 초월성도 허용하지 않는 내재성, 다시 말해 내재성 자체에 대한 내재성을 의미한다. 양태들보다 우월한 지위를 점유하는 어떠한 초월성도 존재하지 않는 한에서, 그것은 위계 없는 하나의 평면으로 나타난다. 결국 내재성의 평면이란 무한한 방식으로 변용시키고 변용되는 양태들로만 구성된 평면, 다시 말해 “양태적 평면”(Deleuze, SPP 164/182)을 일컫는다.

들뢰즈는 이러한 내재성의 평면을 설립했던 철학자로 스피노자를 내세운다. 스피노자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 안에 있다”(E 1부 정리 15)고 말할 때, 이 신은 자신의 외부에 양태들을 생산하는 타동적(他動的) 원인이나 양태들을 넘어서 있는 초월적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스피노자의 신은 자신의 내부에 양태들을 생산하는 내재적(內在的) 원인이며, 따라서 자신이 생산한 양태들 전체와 구별되지 않는다. 신은 내재성의 담지자가 아니라 내재성 자체이며, 스피노자의 정식 ‘신 즉 자연’은 바로 그런 한에서만 자신의 고유한 의미를 획득한다. 즉 신은 자신의 외부에 자연을 산출하거나 자연을 넘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다. 이런 점에서, 들뢰즈가 보기에 스피노자의 자연은 가장 엄밀한 의미에서 내재성의 평면을 이룬다. 그런데 이 내재성의 평면에서 하나의 양태, 즉 신체는 어떻게 정의되는 것일까? 들뢰즈는 스피노자의 ‘자연학 소론’에서 신체를 정의하는 다음의 두 측면을 이끌어낸다. 첫째, 운동과 정지, 빠름과 느림의 특정한 관계 하에서 그 신체에 속하는 물질적 요소들의 집합. 둘째, 그러한 관계에 상응하는 그 신체의 독특한 본질, 즉 역량. 들뢰즈는 이 두 측면을 각각 신체의 경도(經度)(longitude)와 위도(緯度)(latitude)라고 부르는데, 이 ‘지리학적’ 용어들은 모든 신체가 하나의 동일한 평면에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바로 이 경도와 위도에 따라서만 서로 구별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⁹⁾

9) 신체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들뢰즈가 전통적인 형상-질료 모델과 그에 따른 분류 체계의 외부에서 신체를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범박하게 말하자면, 형상은 가장 단순한 물체들이 맺고 있는 관계의 잠정적인 국면들 중 하나에 불과하며, 신체는 유적 동일성과 종차(種差)에 따라서가 아니라 신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따라 분류되어야 한다. 변용능력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예컨대 일을 하는 말과 경주마 사이에는 일을 하는 말과 일소 사이보다 더 큰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Deleuze, *SPP* 167, 184)

1) 신체의 경도: 물질적 요소들의 집합

스피노자는 급진적으로 나아간다. 즉 그는 전적으로 실재적이지만, 형상도 기능도 갖고 있지 않다는 이런 의미에서 추상적인 어떤 요소들에 도달한다. 이 요소들은 운동과 정지, 빠름과 느림에 의해서만 구별된다. [...] 이 요소들은 어떤 현실적 무한의 무한히 작은 궁극적인 부분들이며, 동일한 평면, 즉 공속(共續/共東)(consistance)이나 합성(composition)의 평면에 펼쳐져 있다.(Gilles Deleuze & Félix Guattari, *MP* 310)

먼저 신체의 경도를 살펴보자. 스피노자가 말하는 가장 단순한 물체들, 들뢰즈의 표현에 따르자면 추상적인 요소들은 부분들을 갖고 있지 않으며 자신보다 더 작은 물체들의 합성을 통해 생겨날 수도 없으므로 그 자체로는 실존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시에 그 물체들은 운동과 정지, 빠름과 느림의 관계에 의해 서로 구별된다는 점에서, 다시 말해 운동하거나 정지하고 때로는 더 빠르게 때로는 더 느리게 운동한다는 점에서 자신의 고유한 실재성을 갖는다. 들뢰즈에 따르면, 이 추상적인 요소들은 자신의 고유한 실존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복합물체의 실존을 합성한다.¹⁰⁾ 이러한 합성을 통해 하나의 신체를 이루게 된 물질적 요소들의 집합이 바로 신체의 경도다. 예컨대 무수히 많은 추상적인 요소들은 하나의 신체인 원자를 합성하고, 무수히 많은 원자들은 다시 하나의 신체

10) 진태원은 가장 단순한 물체들에 대한 들뢰즈의 이러한 해석이 스피노자 자신의 이론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현대 물리학의 입자론과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그것을 매우 독창적인 것으로 평가한다.(진태원, 2006, 182~184 참조) 실제로 들뢰즈와 가타리는 『철학이란 무엇인가?』의 5장에서 무한속도(vitesse infini)와 감속(ralentissement)이라는 개념을 통해 모든 가능한 입자들이 순식간에 나타나고 사라지는 무한한 가변성으로부터 현실적 존재자들이 생겨나는 과정을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제롬 로장발롱, 브누아 프레트세이, 『들뢰즈와 가타리의 무한속도』, 1권. 성기현 옮김. (과주: 열린책들, 2012) 107~127쪽을, 그에 앞서 들뢰즈와 가타리의 존재론과 양자물리학의 관계에 대해서는 같은 책, 93~105쪽을 참고하라.

인 세포를, 그리고 무수히 많은 세포들은 또 다시 하나의 신체인 인간을 합성한다. 그러나 인간 또한 그가 딛고 선 땅, 그가 숨 쉬는 대기, 그를 비추는 햇살과 더불어 보다 큰 하나의 신체, 즉 지구를 합성하며, 이러한 합성의 관계는 결국 ‘공속이나 합성의 평면’ 자체에 이른다.¹¹⁾ 인간의 신체는 호흡, 음식물의 섭취와 배설, 상처와 질병 등을 통해 다른 신체들과 합성과 해체를 거듭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정된 시간 동안 자신의 개체성을 유지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죽음이란 한편으로는 하나의 신체를 합성하는 관계들의 해체를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신체를 합성하는 요소들을 또 다른 합성의 관계들로 인도하는 것이기도 하다.

2) 신체의 위도: 변용능력으로서의 역량

스피노자에게는 다른 측면이 있다. 무한히 많은 부분들을 한데 모으는 운동과 정지, 빠름과 느림의 관계들 각각에는 역량의 어떤 정도가 상응한다. 하나의 개체를 합성하는 관계들, 그것을 해체시키거나 변양(變樣)케 하는 관계들에는 그 개체의 작용능력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면서 그것을 변용케 하는 강도(強度)(intensité)들이 상응하는데, 이 강도들은 외적인 부분들(즉 다른 개체의 부분들)이나 그 개체의 고유한 부분들로부터 온다.(Gilles Deleuze & Félix Guattari, MP 313-314)

11) 스피노자는 가장 단순한 물체들의 합성을 통해 복합 물체를, 그리고 복합 물체들의 합성을 통해 인간의 신체를 설명하며, 그런 식으로 나아가 결국은 자연 전체를 하나의 신체로 간주하기에 이른다. “지금까지 우리는 운동과 정지, 빠름과 느림에 의해서만 서로 구별되는 물체들, 즉 가장 단순한 물체들만으로 합성된 개체를 생각해 보았다. [...] 이제 상이한 본성의 여러 개체들로 합성된 다른 개체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 개체가 자신의 본성을 유지하면서도 여러 다른 방식으로 변용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무한히 계속해 나간다면, 우리는 자연 전체가 하나의 개체이며, 그 부분들, 즉 모든 물체들은 전체로서의 개체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서도 무한한 방식으로 변이한다는 점을 쉽게 알게 된다.”(Spinoza, *E* ‘자연학 소론’ 보조정리 7 주석)

다음으로 신체의 위도를 살펴보자. 앞서 언급했듯이, 신체를 합성하는 가장 단순한 물체들은 그 자체로는 어떤 실존이나 본질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이 물체들은 특정한 운동과 정지, 빠름과 느림의 관계 하에서 복합 물체의 실존을 합성할 뿐만 아니라, 그 관계에 상응하는 특정한 강도, 즉 역량을 산출한다. 들뢰즈가 보기에, 신체의 위도에 해당하는 이 “강도의 규정된 정도, 역량의 환원 불가능한 정도”(SPE 184)야말로 신체의 본질에 해당한다. 신체를 특징 짓는 물질적 요소들의 특정한 관계가 유지되는 한에서, 역량은 다른 신체를 변용시키고 다른 신체에 의해 변용되는 능력(작용능력과 피작용능력)으로 나타난다. 들뢰즈가 즐겨 인용하는 워스킬의 동물행동학 연구에 따르면¹²⁾, 진드기의 역량은 다음과 같은 그것의 변용능력에 있다. 먼저, 진드기는 높은 나뭇가지를 확인하고(시각적 변용) 거기에 기어올라 자리를 잡는다. 다음으로, 진드기는 아래로 지나가는 포유동물의 냄새를 맡고(후각적 변용) 그 위에 떨어진다. 마지막으로, 진드기는 털이 없고 따뜻한 곳을 찾아(열과 관련된 변용) 피를 빨다. 진드기는 피를 빨지 않고서도 수년간 견딜 수 있지만, 일단 피를 빨게 되면 자기 몸의 수백 배에 이르는 양을 섭취하기도 한다. 진드기의 삶은 단식과 포식 사이에, 세 가지 변용과 그 사이에 존재하는 기나긴 기다림 속에 놓여있는 셈이다.

3. 신체의 행동학: 신체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앞서 우리는 신체를 다음의 두 측면을 통해 정의했다. 첫째, 특정한 관계 하에서 하나의 신체를 합성하는 물질적 요소들의 집합. 이 요소들은

12) *SPP* 167, 185. 여기서 들뢰즈가 참고하고 있는 워스킬의 저작은 다음과 같다. Jacob von Uexküll, *Mondes animaux et monde humain*. (Paris: Gonthier, 1965).

끊임없이 새로운 관계들을 합성하거나 기존의 관계들을 해체한다. 둘째, 그 신체를 특징 짓는 관계에 상응하는 역량, 즉 변용능력. 이 역량은 관계들의 합성과 해체에 따라 끊임없이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이 두 측면은 이미 ‘신체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일차적인 답변을 함축한다. 즉 신체는 관계를 합성하거나 해체할 수 있으며(좋음과 나쁨), 그에 따라 역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한다(기쁨과 슬픔). 여기서는 이 두 측면을 들뢰즈의 윤리적 기획, 즉 행동학과 관련하여 살펴볼 것이다.

1) 관계의 합성과 해체: 좋음과 나쁨

“저 열매를 먹지 마라...” 불안에 사로잡힌 무지한 아담은 이 말을 금지의 표현으로 알아듣는다. 그러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먹을 경우 아담을 중독시킬 과일이다. 그것은 두 신체의 만남 (rencontre), 각 신체를 특징 짓는 관계가 서로 합성되지 않는 두 신체의 만남이다. 과일은 독처럼 작용할 것이다. 다시 말해 과일은 **아담 신체의 부분들을** (그리고 이와 평행하게 과일의 관념은 아담 영혼의 부분들을) **그의 고유한 본질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도록 결정할 것이다.** [...] 스피노자는 집요하게 다음을 상기시킨다. 우리가 악(Mal), 질병, 죽음의 범주 아래 넣는 모든 현상들은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나쁜 만남, 소화불량, 중독, 마비, 관계의 해체.(Deleuze, SPP 33-34, 38, 강조는 원문)

먼저, 관계를 합성하고 해체하는 신체의 능력을 살펴보자. 하나의 신체는 그 신체를 특징짓는 특정한 관계 하에서 수많은 부분들을 갖는다. 그러나 저마다 하나의 신체인 각각의 부분은 상이한 관계들 하에서 더 작은 부분들을 갖는다. 스피노자 자신의 예에 따르면¹³⁾, 림프와 카일

13) “예컨대 림프, 카일 등 입자들의 운동이 서로 결합되는 한에서, 이 입자들 사이에는 일치와 존재하고 그것들은 피리는 동일한 액체를 형성할 것이며, 림프, 카일 등은 피의 부분들로 간주될 것입니다.” Baruch Spinoza. “À monsieur Henri

(chyle)[지방이 희고 탁한 용액으로 변한 것]은 그것들을 특징 짓는 상이한 관계들 하에서 각각 하나의 신체지만, 그 둘을 결합하는 제3의 관계 하에서는 더불어 혈액을 합성한다. 그리고 혈액 또한 그것을 다른 신체들과 결합하는 또 다른 관계 하에서 한 마리의 동물이나 한 사람의 신체를 합성한다. 소화마비, 중독, 마비는 이러한 관계들 중 하나(혹은 여럿)가 해체되는 경우를, 그리고 죽음은 그 신체를 특징 짓는 관계 자체가 해체되는 경우를 일컫는다. 결합되거나 해체되는 관계들, 스피노자는 그것을 선(bien)과 악(mal)이 아니라 좋음(bon)(적합함(convenience))과 나쁨(mauvais)(부적합함(disconvenance))이라고 부른다. 좋음은 어떤 신체가 우리 신체와 관계를 맺고 그로 인해 우리 신체의 역량을 증가시키는 경우를 가리키며, 나쁨은 어떤 신체가 우리 신체가 지닌 관계들의 일부 또는 전체를 해체하고 그로 인해 우리 신체의 역량을 감소시키는 경우를 가리킨다.¹⁴⁾

이 좋음과 나쁨은 음식물 섭취와 같은 물질적 요소들의 경우만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에도 적용된다.(Deleuze, SPP 50/55) 예컨대, 도둑질일 경우 해체되는 것은 한 인간과 그의 소유물 사이의 관계이며, 해고의 경우 해체되는 것은 한 인간과 그의 직장 사이의 관계다. 도둑질이나 해고의 행위가 이전의 사회적·제도적·계약적 관계를 해체하는 한에서, 그 행위는 그에게 **나쁘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원기를 북돋워주는 음식, 다정한 사람들과의 만남, 지혜로운 스승의 가르침은 나에게 **좋으며**, 소화불량과 알레르기, 도박이나 마약중독, 범죄조직과의 연루 등은 **나쁘다**.

Olenburg(Lettre XXXII).” *Œuvres IV*, traduction et notes par Charles Appuhn, (Paris: Garnier-Frammarion, 1966) 236. 립프와 카일은 당시 혈액의 구성성분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 예에 대한 논의는 Deleuze, SPP 46-47, 52에 등장한다.

14) “인간 신체의 부분들이 갖는 운동과 정지의 관계를 유지하게 만드는 모든 것은 **좋다**. 반대로, 인간 신체의 부분들이 다른 운동과 정지의 관계를 갖게 만드는 모든 것은 **나쁘다**.”(Spinoza, E 4부 정리 39, 강조는 인용자)

2) 역량의 증가와 감소: 기쁨과 슬픔

우리가 경험 속에서 우리 신체에 적합하지 않은 신체를 만난다면, 그 결과 우리는 슬픔(tristesse)으로 변용된다(우리 작용능력의 감소). 이 경우 공통 통념(notion commune)을 형성하게 해주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두 신체가 적합하지 않다면, 이는 두 신체에 공통으로 속한 바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우리 신체에 적합한 신체를 만난다면, 그 결과 우리는 기쁨(joie)으로 변용된다. 이 기쁨(우리 작용능력의 증가)은 두 신체에 대한 공통 통념을 형성하게, 다시 말해 두 신체의 관계들을 합성하고 그 합성의 통일성을 이해하게 해준다.(Deleuze, SPP 160/176, 강조는 원문)

다음으로, 신체의 역량, 즉 변용능력의 증가와 감소(기쁨과 슬픔)를 살펴보자. 각 신체의 역량은 저마다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일정한 정도의 변용능력으로 나타난다. 이 변용능력은 그 신체가 만나는 물질적 요소들, 사회적·제도적·계약적 관계들에 따라 매 순간 전체로서 실행되지만, 이 실행의 양상은 매번 지극히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첫째, 신체의 변용이 변용되는 신체에 의해 설명되고 그 신체로부터 유래할 경우, 그 변용은 능동이며 이때 변용능력은 작용능력(puissance d'agir)으로 나타난다. 둘째, 신체의 변용이 그 신체를 변용케 하는 외부 신체에 의해 설명되고 그 외부 신체로부터 유래할 경우, 그 변용은 수동이며 이때 변용능력은 피작용능력(puissance de pâtir)으로 나타난다. 자신의 역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한에서, 변용능력은 이러한 작용능력과 피작용능력이 뒤섞여 서로 반비례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수동적인 변용은 외부 신체가 우리에게 적합한지, 다시 말해 우리와 결합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1) 나에게 수동적인 변용을 가하는 신체가 나의 신체에 적합할 때, 두 신체는 새로운 관계를 합성하고 그로 인해 그 신체의 작용능력은 나의 작용능력에

덧붙여진다. 나의 작용능력을 증가시키는 이 수동[정념]은 기쁨이라고 불린다.¹⁵⁾ 2) 나에게 수동적인 변용을 가하는 신체가 나의 신체에 적합하지 않을 때, 그 신체는 내 신체의 관계를 해체하거나 그러한 해체를 막기 위해 내 작용능력의 일부를 사용하도록 강제한다. 나의 작용능력을 감소시키는 이 수동[정념]은 슬픔이라고 불린다.¹⁶⁾

이상의 두 측면으로부터 ‘신체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 겨냥하는 고유의 목표가 나온다. 즉 **좋은** 만남과 **기쁜** 정념. 좋은 만남과 기쁜 정념은 내가 마주한 신체가 나와 결합할 수 있는 것임을, 따라서 나의 작용능력을 증가시켜주는 것임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공통 통념을 형성하기 위한 출발점을 또한 제공한다.¹⁷⁾ 공통 통념이란 “둘 또는 여러 신체들 사이의 합성과 이 합성의 통일성에 대한 표상”(Deleuze, SPP 127, 140)으로서, 모든 신체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일부의 신체들에만 적용되는지에 따라 더 혹은 덜 일반적이다. 아이는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는 좋은 만남과 기쁜 정념을 위한 무수한 실험(experimentation)의 결과들을 배워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신체에 고유한 합성과 해체의 관계들, 자기 역량의 증가와 감소를 몸소 실험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합성의 관계들에 대한 선형적 인식을 가지고 있지

15) “기쁨(La Joie)은 인간의 더 작은 완전성에서 더 큰 완전성으로의 이행이다.”(Spinoza, E 3부 정서에 대한 정의 2)

16) “슬픔(La Tristesse)은 인간의 더 큰 완전성에서 더 작은 완전성으로의 이행이다.”(Spinoza, E 3부 정서에 대한 정의 3) “나는 이행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기쁨은 완전성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자신이 이행하는 완전성을 인간이 실제로 가지고 태어났다면, 그는 기쁨의 정서 없이 그것을 가졌을 것이다. [...] 슬픔은 더 작은 완전성으로 이행하는 운동, 다시 말해 인간의 작용능력을 감소시키거나 억누르는 운동에 다름 아니다.”(같은 곳, 해명)

17) 공통 통념의 형성에 대한 들뢰즈의 논의는 Pierre Macherey와 진태원 등 스피노자 연구자들에 의해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Pierre Macherey, 1996, 진태원, 2006. 후자의 경우, 특히 309~313 참조). 이 비판의 논점과 그에 대한 반론은 김재인, 2008. 214~228을 참고하라.

않다, 실험이 필요하다.”(Deleuze, SPP 158, 173~174) 신체가 지닌 합성과 변용의 능력에 대한 이 실험, 그리고 그로 인해 획득되는 좋음과 나쁨, 기쁨과 슬픔의 윤리가 바로 신체의 행동학이다. 물질적 요소들의 합성과 해체라는 관점에서, 나의 신체에는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신체의 역량, 즉 변용능력이라는 관점에서, 나의 신체는 무엇을 하고 있으며 또 할 수 있는가? 신체의 행동학이 다루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물음들이다.

4. 들뢰즈의 감각론: 신체의 합성과 변용을 어떻게 탐구할 것인가

느껴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느껴라(Sentez, sentez à quoi on en arrive).¹⁸⁾

서론에서 제기되었던 다음의 문제를 떠올려보자. 신체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합성과 변용의 결과만을 받아들일 뿐, 그러한 합성과 변용의 원인, 보다 정확히 말해 그 발생적 요소들에는 이르지 못한다. 그렇다면 신체에 대한 탐구는 어떻게 이 발생적 요소들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들뢰즈(와 가타리)의 감각론은 바로 이 물음에 대한 답변들 중 하나로 제시되는데, 여기서 물음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된다. 감각을 통해, 그리고 감각존재인 예술작품을 통해 어떻게 이 발생적 요소들에 도달할 것인가? 그(들)에게서 감각에 대한 논의는 『천 개의 고원』과 『프랜시스 베이컨: 감각의 논리』를 거쳐 말년의 대작인 『철학이란 무엇인가?』에서 가장 체계적인 형태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감각은 예술의 정의로, 다시

18) Gilles Deleuze. “1981, 1. 20. Éternité, instantanéité, durée”. Les cours de Gilles Deleuze. 이 강연을 비롯한 다수의 강연록이 www.webdeleuze.com에서 제공되었으나, 2013년 5월 현재에는 제공되고 있지 않다.

말해 예술을 철학 및 과학과 구별해주는 본질적 요소로 나타난다. 감각 존재로서의 예술작품은 무관심적인 관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를 변용케 하는 하나의 독특한 신체다. 다시 말해, 예술작품은 예술가가 자신의 감각을 통해 수행한 행동학적 실험의 산물인 동시에, 우리를 그러한 실험으로 끌어들이는 매개체이기도 하다. 예술작품은 우리의 변용 능력을 자극함으로써 일상적으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 것들을 파악하고, 한 번도 의식해보지 못했던 낯선 감정들과 조우하게 만든다. 이로 인해 들뢰즈와 가타리에게서 예술은 합성과 변용의 발생적 요소들에 이르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나타난다.

『철학이란 무엇인가?』에서 제시되는 감각 개념의 핵심은 이전까지 perception과 affection으로 지칭되어 왔던 사태를 perception/percept, affection/affect리는 두 쌍의 개념으로 각각 분절하고, 이중 percept와 affect만을 감각의 구성요소로 취하는 데 있다. 여기서 perception은 다른 신체에 의해 변용된 신체의 특정한 상태라는 의미를, affection은 그에 상응하는 역량의 특정한 상태라는 의미를 갖는다.¹⁹⁾ 들뢰즈와 가타리가 이 개념쌍을 도입하는 것은 perception과 affection이 보다 미시적이고 보다 역동적이며 보다 지속적인 발생적 요소들의 변이로부터 생겨난 거시

19) “우리가 ‘perception’이라고 부르는 것은 더 이상 사물의 상태가 아니라, 다른 신체에 의해 초래되는 한에서의 신체의 상태다. 그리고 우리가 ‘affection’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른 신체의 작용 하에서 잠재력-역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행하는 것이다.”(Gilles Deleuze & Félix Guattari, *QP* 145-146) 같은 곳에서 들뢰즈와 가타리는 perception이 스피노자의 affectio를, affection이 affectus를 가리킨다고 말하는데, 이는 여기서 1) perception이 신체의 **상태**로, affection이 신체 역량의 **이행**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따라서 2) affection이 정서상태라는 의미의 affection과 각 상태들 사이의 이행, 즉 정서운동이라는 의미의 affect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논점을 고려하여 affection과 affect를 다시 구별한다면, 본문에서와 같이 affection(affectio)이 신체의 특정한 상태인 perception에 상응하는 역량의 특정한 상태를 가리키고, affect(affectus)가 역량의 증감 자체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다. 『스피노자. 실천철학』에서는 affection의 세 가지 의미가 제시되는데, affection과 affect의 구별은 그 중 세 번째 의미에 부합한다. 이하의 논의를 참고하라.

적이고 정적이며 잠정적인 상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기 위해서다. 이 두 가지는 발생적 요소들로부터 수동적으로 얻어진 **상태**에 불과하지만(즉 지각상태와 정서상태), 흔히 주체가 능동적 **작용**을 통해 획득한 것으로 이해된다(즉 지각작용과 정서작용). 따라서 이 두 개념은 들뢰즈와 가타리가 이해한 바의 의미, 즉 전자의 의미로 사용될 때에는 각각 지각상태와 정서상태로, 비판적 관점에서 후자의 의미로 사용될 때에는 각각 지각작용과 정서작용으로 번역될 수 있다. 이와 구별하여, 그것들의 발생적 요소들을 가리키는 두 개념, 즉 *percept*와 *affect*는 각각 지각과 정서로 번역될 수 있는데, 여기서 그들의 논점은 사람들이 흔히 지각이나 정서라고 생각하는(그리고 그렇게 번역하는) *perception*와 *affection*이 진정한 지각과 정서인 *percept*와 *affect*의 미시적·역동적·지속적 변이로부터 얻어진 거시적·정적·잠정적 상태에 불과하다는 데 있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percept*는 지각상태[지각작용]를 구성하는 미분적 요소들의 합성과 해체를, *affect*는 정서상태[정서작용]를 자신의 한 국면으로 포함하는 신체역량의 증가와 감소를 가리킨다. 1) 지각상태와 정서상태 2) 지각과 정서의 이러한 구별은 서론에서 살펴본 1) 신체에 대한 우리의 인식(결과) 2) 신체의 능력과 그 실제적 변용(원인)의 구별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그(들)의 감각론이 신체의 행동학이라는 윤리적 기획의 연장선상에서 펼쳐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예술의 목적은 재료의 매개를 통해 대상에 대한 지각작용과 지각하는 주체의 상태로부터 지각을 떼어내는 것이며,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이행인 정서작용으로부터 정서를 떼어내는 것이다.(Gilles Deleuze & Félix Guattari, *QP* 158)

위의 인용문은 우리에게 다음의 세 가지 논점을 제시한다. 첫째, 발생적 요소로서 지각은 어떻게 지각작용을 구성하는가. 둘째, 발생적 요소

www.kci.go.kr

로서 정서는 어떻게 정서작용을 구성하는가. 그리고 셋째, 예술은 어떻게 지각작용과 정서작용으로부터 지각과 정서를 떼어내기에 이르는가. 다시 말해, 예술은 어떻게 지각작용과 정서작용의 발생적 요소들에 이르는가. 먼저 첫 번째 논점과 관련하여, 『주름, 라이프니츠와 바로크』에서 들뢰즈는 미시지각으로부터 의식적 지각이 발생하는 과정을 설명한다.²⁰⁾ 의식적 지각은 그것을 구성하는 최소한 두 개의 발생적 요소들이 미분적 관계[미분율]rapport différentiel를 맺을 때 생겨난다. 파란색과 노란색 물감을 섞어 초록색을 만든다고 해보자. 초록색의 구성요소를 이루는 노란색과 파란색은 $\frac{d\text{파란}}{d\text{노란}}$ 의 관계 속에서 각자 자신의 고유한 색을 잃어버리고 초록색을 규정하는 하나의 값에 도달할 것이다. 우리가 허기를 느낀다고 해보자. 이 또한 설탕의 부족, 기름의 부족 등등이 맺고 있는 미분적 관계[미분율]로부터 생겨난다. 이러한 사례들이 잘 보여주듯이, “모든 의식은 문턱이다.”(Deleuze, *PLB* 117/161) 그리고 특정한 관계 하에서 이 문턱을 넘어설 때에만 우리 의식에 도달하는 미시지각들은 의식적 지각의 “발생적 요소들”(Deleuze, *PLB* 118/162)이다.

두 번째 논점은 affection(affectio)과 affect(affectus) 개념을 엄밀하게 정의함으로써 해결된다. 『스피노자. 실천철학』 3장의 용어해설에 따르면(68-72/76~81), affection은 다음의 세 가지 의미를 갖는다. 1) 양태 자체, 즉 실제 또는 그 속성들의 변용 2) 양태의 변양, 즉 어떤 양태에 다른 양태들이 미친 결과 3) 양태의 변양에 따른 신체와 정신의 어떤

20) Gilles Deleuze, *PLB* 116-119.; 『주름, 라이프니츠와 바로크』. 이찬웅 옮김.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4) 159~162 번역참조. 이 책을 인용할 경우 해당 페이지의 쪽수를 원서/번역서의 형태로 본문에 병기한다. 우선 다음의 구절을 참고하라. “만약 이전 거시지각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다음 거시지각을 예비하는 무수히 많은 미시지각들의 집합을 의식적 지각이 통합하지 않는다면, 그 의식적 지각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 무언가를 먹고 있는 개를 몽둥이로 아무리 빨리 내려친다 하더라도, 그 개는 내가 은밀히 다가오는 것, 나의 적대적인 분위기, 내가 몽둥이를 들어올리는 것에 대한 미시지각들을 가질 것이며, 이 미시지각들이 기쁨에서 고통으로의 전환을 떠받치는 것이다.”(115, 158)

상태. affection과 affect의 구별은 바로 이 3)의 정의로부터 나온다. 흔히 생각하듯이, affection은 신체에 관련되고 affect는 정신에 관련되는 것이 아니다. 이 두 가지는 정신과 신체 모두와 관련되며, 오히려 ‘특정한 상태’와 ‘상태들 사이의 이행’이라는 관점에서 구별된다. 예컨대, 신체의 관점에서 “affectio[affection]는 변용되는 신체의 어떤 상태를 가리키고 변용시키는 신체의 현존을 함축하는 데 반해, affectus[affect]는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이행을 가리키고, 그에 상응하는 변용시키는 신체의 변이를 고려한다.”(Deleuze, *SPP* 69, 77) 오후 2시, “큰 시험을 앞두고 불안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오후 2시 30분, “그래도 너를 만나 얘기를 나누니 한결 편안하고 자신감이 생긴다.” 각각 더 작고 더 큰 작용능력을 함축하는 두 상태 사이에, 즉 ‘너’를 만나러 가는 길에, (아직 분명하게 의식되지는 않고 있지만) 두 상태 사이를 이어주는 작용능력의 점진적인 증가가 존재한다. 실은 보다 엄밀하게,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먼저 작용능력의 증가와 감소를 가리키는 지속적인 변이가 존재하며, 이러한 변이는 우리를 변용케 하는 다른 신체와의 연관 속에서 특정한 문턱을 통과할 때에만 우리의 의식에 나타난다.

이처럼 진정한 “운동과 생성[되기], 즉 빠름과 느림의 순수한 관계와 순수한 정서는 지각작용의 문턱 아래나 위에”(Gilles Deleuze & Félix Guattari, *MP* 344) 존재한다. 들뢰즈와 가타리에 따르면, 지각작용과 정서작용의 문턱을 넘어서는 것, 즉 순수한 지각과 정서에 도달하는 것은 감각론의 과제인 동시에 예술의 과제이기도 하다. 예컨대 한 편의 소설은 “지각에 이르기까지 고양되어” “어떤 하루의 시간, 어떤 순간의 온도를 그 자체로 보존”(Gilles Deleuze & Félix Guattari, *QP* 159)할 뿐만 아니라, “알려지지 않았거나 잘못 알려진 정서들을 발명하고, 그 정서들을 자기 인물들의 생성[되기]으로 발현”(165)시켜야 한다. 『천 개의 고원』과 『철학이란 무엇인가?』는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술한 예술적 기획들과 그 사례들을 담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 중 한 가지 사

레만을 소개할 것이다.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는 글쓰기를 위한 하나의 정식, 즉 “각각의 원자를 충족시키기(Saturer chaque atome)”(Gilles Deleuze & Félix Guattari, MP 343, QP 163)를 제안했는데, 들뢰즈와 가타리에 따르면 이 정식은 문학은 물론 회화에도 적용될 수 있다.

평범한 날의 평범한 마음을 잠시 살펴보자. 그 마음은 무수히 많은 인상들을 받아들인다 - 하찮은 것, 기이한 것, 덧없는 것, 또는 강철의 날카로움으로 새겨진 것. 그 인상들은 모든 방향에서 헤아릴 수 없는 원자들의 끊임없는 소나기로 내린다. 그리고 그 인상들이 내려올 때, 그 인상들이 스스로를 월요일이나 화요일의 삶으로 빚어낼 때, 강조점은 예전과 다르게 주어진다. 중요한 순간은 여기가 아니라 저기에서 왔다. [...] 원자들이 마음에 내려올 때, 내려오는 순서대로 그것들을 기록해보자, 보기에는 동떨어져 있고 일관성이 없더라도 각각의 풍경이나 사건이 의식에 새겨지는 패턴을 추적해보자.²¹⁾

물론 여기서 ‘원자들’은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원자가 아니라, ‘월요일이나 화요일의 삶’을 구성하는 발생적 요소들로서의 ‘인상들’을 가리킨다. 버지니아 울프 자신은 이 정식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는 모든 쓰레기, 죽은 것, 불필요한 것을 제거한다는 뜻이다. 순간이 무엇을 담고 있건 그 순간에 전체를 부여한다는 것. [...] 쓰레기, 죽은 것은 그 순간에 속하지 않는 것들을 포함시키는 데서 온다. [...] 실제로 모든 것을 넣으면서도 그 모두를 충족시키고 싶다.”²²⁾ 각각의 원자를 충족시킨다는 것은 바로 이 발생적 요소들로서의 인상들만을 있는 그대로

21) Virginia Woolf, 2012. 61-2. 『천 개의 고원』에서 들뢰즈와 가타리는 다음의 구절을 인용한다. “딱 떠오른 생각이지만, 내가 지금 하려는 것은 각각의 원자를 충족시키는 일이다.”(343)

22) Virginia Woolf, 1984. 209-10. 이는 앞의 주석에서 인용된 구절에 바로 이어지는 대목이다.

로 기록하고 불필요하고 잉여적인 모든 것을 제거한다는 의미다. 들뢰즈와 가타리의 방식으로 말하자면, 이러한 글쓰기는 지각작용과 정서작용의 문턱을 넘어 순수한 지각과 정서에 이르는 감각의 초월론적 실행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행의 산물인 예술작품은 다시금 감상자들을 초월론적 실행의 영역으로 인도함으로써 ‘신체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행동학적 물음에 직면하도록 만든다.

5. 맺음말

철학에서 감각은 주로 인식론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져 왔다. 다시 말해, 감각에 대한 철학적 탐구는 주로 ‘인간은 무엇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 고려되어 왔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감각에 제기되는 물음은 다음과 같이 정식화된다. 감각은 보편타당한 인식의 원천이 될 수 있는가? 이 전형적인 물음으로부터 우리는 이러한 탐구의 몇 가지 전제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 첫째, 감각은 인식을 위한 소여로서 다루어진다. 둘째, 보편타당한 인식이란 이른바 ‘개념을 통한 인식’이므로, 감각은 지성이 선형적으로 또는 경험을 통해 이미 갖고 있는 개념에 부합하는 소여를 제공할 때에만 일정한 가치를 갖는다. 셋째, 이 가치가 바로 ‘개념과 대상의 일치’로서의 진리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감각은 오류의 근원으로 간주된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데카르트는 보편타당한 인식의 원천에서 가장 먼저 감각을 배제했다. 예컨대 조금 전, 내가 곧은 것으로 인식했던 저 막대는 지금 물 속에서 휘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감각의 오류가능성은 자명하지 않은가? 그러나 데카르트는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았다. 자신의 인식이 여전히 진리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는 그 막대를 꺼내 다시금 만져보고 눈

으로 확인해 보아야 할 텐데도 말이다. 이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인식에 부합하지 않는 감각을 배제하는 것만으로는 감각의 '진리'(물 밖에서는 곧게, 물 안에서는 휘어져 보인다는 사실)도 감각의 '논리'(왜 물 밖에서는 곧게, 물 안에서는 휘어져 보이는가를 설명해주는 논리)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감각을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즉 내재성의 평면에 놓인 신체들 간의 만남으로 파악하고, 그러한 만남이 가져다 주는 신체의 합성과 변용이라는 관점에서 그것을 탐구한다. 감각은 더 이상 지성의 종합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인식의 소여가 아니다. 그것은 나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작용함으로써 나의 신체를 변용케 한다. 이제 감각은 최소한 두 개의 신체가 맺는 관계의 합성과 해체에 대한 문제이자 그에 상응하여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역량의 문제가 되는데, 이때 관계의 합성과 해체는 좋거나 나쁜 것으로, 그에 상응하여 역량의 증가와 감소는 기쁘거나 슬픈 것으로 나타난다. 이 좋음과 나쁨, 기쁨과 슬픔으로부터 들뢰즈(와 가타리)는 (심판과 금지로서의 도덕이 아니라) 삶을 위한 실험으로서의 윤리학, 즉 행동학을 구성한다. 그러나 이러한 실험이 갖는 난점은 '신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데 있다. 즉 신체의 실제적 합성과 변용은 우리의 인식을 넘어서 있다. 감각론의 과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제기된다. 신체에 대한 인식을 넘어 신체의 미지(未知)에 도달하라. 이러한 과제는 합성과 변용의 결과에 대한 인식(즉 지각작용과 정서작용)을 넘어 합성과 변용의 발생적 요소들(즉 지각과 정서)에 도달하는 감각의 초월론적 실행을 요구한다. 예술작품을 감각존재로 정의하면서, 들뢰즈(와 가타리)는 예술을 바로 이 초월론적 실행과 결부시킨다. 예술의 목적은 감각의 초월론적 실행을 통해 합성과 변용의 발생적 요소들에 도달하는 데 있으며, 아울러 우리가 감각할 수 있도록 그 발생적 요소들을 하나의 작품으로 구성하는 데 있다. 따라서 들뢰즈와 가타리에게 예술작품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했

던 예술가들의 실험일지인 동시에, 미래의 실험자들을 위해 그들이 마련해둔 일종의 실험장치로 나타난다.

참고문헌

- 김재인. 「들뢰즈의 스피노자 연구에서 워스킬의 위상」. 『철학 논구』36 (2008): 191-232.
- _____. 「들뢰즈의 미학에서 '감각들의 블록'으로서의 예술 작품」. 한국미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미출간원고, 2013.
- 들뢰즈, 질. 『스피노자의 철학』. 박기순 옮김. 서울: 민음사, 1999.
- _____. 『주름, 라이프니츠와 바로크』. 이찬웅 옮김.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4.
- 로장발롱, 제롬, 브누아 프레트세이. 『들뢰즈와 가타리의 무한속도』. 성기현 옮김. 1권. 파주: 열린책들, 2012.
- 이찬웅. 「들뢰즈의 영화미학에서 정서의 문제」. 『美學』69 (2012):151-80.
- _____. 「들뢰즈의 회화론: 감각의 논리란 무엇인가?」. 『美學』71 (2012): 105-45.
- 진태원. 「스피노자 철학에 대한 관계론적 해석」. 서울대학교, 2006.
- _____. 「정신적 자동장치란 무엇인가?」. 『철학 논집』28 (2012): 119-48.
- Deleuze, Gilles. *Spinoza et le problème de l'expression*. Paris: Minuit, 1968. (약호 SPE)
- _____. *Spinoza, Philosophie pratique*. 2e éd. Paris: Minuit, 1981. (약호 SPP)
- _____. *Le pli, Leibniz et le baroque*. Paris: Minuit, 1988. (약호 PLB)
- _____. "1981. 1. 20. Éternité, instantanéité, durée." *Les cours de Gilles Deleuze*. <www.webdeleuze.com>
- _____. *Mille Plateaux*. Paris: Minuit, 1980. (약호 MP)
- _____. *Qu'est-ce que la philosophie?*. Paris: Minuit, 1991. (약호 QP)
- Descartes, René. *Œuvres de Descartes*. Éds. Charles Adam et Paul Tannery. XI. Paris: Vrin, 1984.

- Macherey, Pierre. "The Encounter with Spinoza." *Deleuze: A Critical Reader*, ed. Paul Patton. Oxford & Cambridge: Blackwell, 1996.
- Spinoza, Baruch. *Œuvres IV*. Traduction et notes par Charles Appuhn. Paris: Garnier-Frammarion, 1966.
- _____. *Éthique*. Présenté et traduit par Bernard Pautrat. Paris: Seuil, 2010. (약호 E)
- Uexküll, Jacob von. *Mondes animaux et monde humain*. Paris: Gonthier, 1965.
- Woolf, Virginia. *The Diary of Virginia Woolf*. Ed. Anne Olivier Bell. Orland: Harcourt, 1984(1977).
- _____. "The Modern Fiction." *The Common Reader First Series* [Kindle Edition]. Montreal: Green Light Press, 2012(1925).

Works Cited

- Deleuze, Gilles. *Spinoza et le problème de l'expression*. Paris: Minuit, 1968.
- _____. *Spinoza. Philosophie pratique*. 2e éd. Paris: Minuit, 1981.
- _____. *Le pli, Leibniz et le baroque*. Paris: Minuit, 1988.
- _____. "20 January 1981. Éternité, instantanéité, durée." *Les cours de Gilles Deleuze*. <www.webdeleuze.com>.
- _____. *Mille Plateaux*. Paris: Minuit, 1980.
- _____. *Qu'est-ce que la philosophie?*. Paris: Minuit, 1991.
- _____. *Spinozawi cheolhak [Spinoza philosophie pratique]*. Trans. Pak Gi-Sun. Seoul: Minumsa, 1999.
- _____. *Jureum, Leibnizwa Baroque [Le Pli, Leibnitz et le baroque]*. Trans. Lee Chan-Wung. Seoul: Munhakkwa Jiseongsa, 2004.
- Descartes, René. *Œuvres de Descartes*. Éd. Charles Adam et Paul Tannery. X I . Paris: Vrin, 1984.
- Jim Tae-Won. *Spinoza cheolhake daehan gwankyeronjeok haeseok [The relational Interpretation of Spinoza's Philosophy]*. Dis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6.
- _____. "Jeongsinjeok jadongjangchiran mueosinga?" [What Is a Spiritual Automaton? Descartes, Spinoza, Deleuze] *Cheolhak nonjip [Sogang Journal of Philosophy]* 28 (2012): 119-48.
- Kim Jae-In. "Deleuzeui Spinoza yeongueseou Uexküllu wisang" [The Status of Uexküll in the Deleuze's Research on Spinoza]. *Cheolhak nongu [Philosophical forum]* 36 (2008): 191-232.
- _____. "Deleuzeui mihakeseo 'Gamgakdeului beulrok'euroseoui yesul jakpum" [The Work of Art as 'block of sensations' in Deleuze's Aesthetics]. *Hanguk Mihakhoe Chungye Haksuldaehoe Balpyononmun [2013 Spring Conference Announcement of Korean Association for Aesthetics]*. Unpublished article, 2013.
- Lee Chan-Wung. "Deleuzeui yeonghwamihakeseo jeongseoui munje" [Le problème de l'affect dans l'esthétique du cinéma de Deleuze]. *Mihak [The Korean Journal of Aesthetics]* 69 (2012): 151-80.
- _____. Deleuzeui hoehwaron: Gamgakui nonriran mueosinga? [La théorie de la peinture de Deleuze: qu'est-ce que la logique de la sensation?]. *Mihak [The Korean Journal of Aesthetics]* 71 (2012): 105-45.
- Macherey, Pierre. "The Encounter with Spinoza." *Deleuze: A Critical Reader*. Ed. Paul Patton. Oxford & Cambridge: Blackwell, 1996.
- Rosanvallon, Jérôme, Preteseille, Benoît. *Deleuzewa Guattariui muhansokdo*. Trans. Seong Gi-Hyeon. Vol. 1. Paju: Yeolrinchaekdeul, 2012.
- Spinoza, Baruch. *Œuvres IV*. Traduction et notes par Charles Appuhn. Paris: Garnier-Frammarion, 1966.
-

-
- _____. *Éthique*. Présenté et traduit par Bernard Pautrat. Paris: Seuil, 2010.
- Uexküll, Jacob von. *Mondes animaux et monde humain*. Paris: Gonthier, 1965.
- Woolf, Virginia. *The Diary of Virginia Woolf*. Ed. Anne Olivier Bell. Orland: Harcourt, 1984(1977).
- _____. "The Modern Fiction." *The Common Reader First Series*[Kindle Edition]. Montreal: Green Light Press, 2012(1925).

Theory of Sensation as Theory of Body - Deleuze's Answer to Spinoza's Question: What Can Our Bodies Do?

SEONG Gihye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constitute the answer of Deleuze and Guattari to Spinoza's question ("What can our bodies do?") and to properly situate their theory of sensation as an answer to this question. Their theory of sensation is basically an extension of their ethical project, ethology. In their view, ethology means the study of the body's ability of composition and modification. But normally, it is difficult for us to concretely feel and understand compositions and modifications. To do this, we require a type of transcendental practice of our sensations. In my opinion, their theory of sensation shows this transcendental practice. The core of their theory of sensation is to distinguish two pairs of concepts, perception/percept and affection/affect, and to accept only percept and affect as the two constituents of sensation. Percept and affect are the genetic elements of our ordinary perception and affection. Deleuze and Guattari consider a work of art as a block of percepts and affects. According to them, a work of art is a special body that modifies our bodies, and it makes us reach percepts and affects. In this sense, for Deleuze and Guattari, a work of art is considered an effective means for transcendental practice of our sensation.

Keywords : Gilles Deleuze, Félix Guattari, Body, Sensation, Percept, Affect (질 들뢰즈, 펠릭스 가타리, 신체, 감각, 지각, 정서)

Received: 15 April 2013
Reviewed: 10 May 2013
Accepted: 15 May 2013